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루시퍼 신드롬



진성오 역
심리학자

스텐퍼드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가 수행한 일종의 심리학 실험에서 근원한 용어로, 학교 지하에 교도소를 만들어놓고 지원자를 뽑아 죄수와 교도관 역할의 두 집단을 만들고 2주간 이들이 어떻게 살아아가는가를 관찰 연구한 실험을 기록한 책의 이름이다.

단순히 실험이며 역할 놀이에 가까웠던 실험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험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일치시켜가기 시작하며 실제 실험을 넘어서서 성적 학대 수준의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

결국 2주를 예정한 실험은 참가한 피험자들의 우울증, 정신적 고통 등으로 6일 만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여러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인간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루시퍼'와 같은 악마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루시퍼는 보통 '악마의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루시퍼라는 말은 원래 셋별인 금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여성적인 요소의 비하가 일종의 악마의 왕으로서 위치까지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관찰한 인간의 악한 변화를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으로, 혹은 단순히 나보다 힘센 사람이 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악한지의 판단보다 먼저 행동을 실천하는 무기력한 존재다.

이런 '루시퍼 효과'는 사실 짐바르도의 실험 이전에 무수한 인간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한나 아렌트가 기술했던 '악의 평범성'에도 나온다. 그녀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악마의 왕인 루시퍼가 특별히 뿔을 달고 얼굴이 빨갛고 꼬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옆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프로모 레비는 자신의 수용소 생존 40년 이후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인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가라 앉은 자 구조된 자'라는 책을 저술한다.

그 책에서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피해자인 사람들의 영역 안에서 더욱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 그리고 가해자들이 일상성과 평범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한다. 이후 1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고통스러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남은 생존자가 삶이라는 아우슈비츠에서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풀려났던 것이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마사회, 서울대어린이병원에 헌혈증·기부금 전달

한국마사회는 지난 5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의 헌혈증서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최은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한국거래소, 다문화가족 의료지원사업 3억 후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6일 강원 삼척시 소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의료지원사업 후원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앙대병원과 협력해 전국 8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구성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초청) 건강검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DB손해보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서

DB손해보험은 지난 6일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러브하우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임직원과 DB프로미 농구단 등으로 이뤄진 80여명의 봉사단은 사단법인 '함께웃는세상'과 함께 원주시내 홀몸노인 및 국가유공자의 거주지를 찾아 도배지와 장판 교환, 생활개선 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DB손해보험



중앙그룹, '양중크루' 2기 본격 활동

중앙그룹은 대학생 크리에이터 '양중크루' 2기가 지난 4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 파크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양중크루는 2달 간 ▲실무진 특강 ▲주요 사업장 견학 ▲컨퍼런스 참가 ▲임직원 커피챗(멘토링) ▲취향 클럽(동아리)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중앙그룹 대표 크리에이터로 활약할 예정이다. /중앙그룹

동아제약

박카스배 전국골프대회 개최

동아제약이 대한민국 골프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을 육성하는 데 앞장선다.

동아제약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2024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대한골프협회 선수등록규정에 의해 2024년 현재 선수등록을 한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17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동아제약은 골프 꿈나무들이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더 넓은 세계에서 활약하는 프로선수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현대차그룹, 소방관 회복지원버스 캠페인 영상 공개

응원편지 형식... 소방관들 참여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보통의 영웅들'을 응원한다.

현대차그룹은 현장 소방관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소방관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 이야기를 그린 캠페인 영상인 '사육, 사철'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대형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빠른 재충전을 돕기 위해 수소 기술이 탑재된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를 기증하는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과 소방청,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영상은 선배 소방관이 후배 소방관에게 전하는 응원 편지 형식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휴식 또한 중요함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소방관들은 불길과 연기



현대차그룹의 현장 소방관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를 사용하게 될 제주소방본부 소방관들.

가 가득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2~30분 간격 교대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선다. 소방관들은 교대 후 휴식 시 배기가스 없이 순수한 물 만을 배출하고 소음과 진동이 없는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의 내부에서 다음 교대 투입을 위해 재충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상 제작에는 인천, 제주, 강원 소방본부의 소방관들이 직접 참여했다. 영상의 제목인 '사육, 사철'의 목소리 더빙과 출동 장면에는 인천

소방본부 최방균 소방경과 김민현 소방장이 출연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움직임"이라는 사회적 책임 메시지 아래 다양한 영역에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해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진정성을 담고 기술의 선한 활용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협력사 초청의 날' 행사

김인규 "100년 기업으로서 협력사 동반성장 최선"

(하이트진로 대표)

SGC솔루션 등 협력사 100곳 초청

하이트진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협력사초청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총 100개 협력사를 초청해 10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초청의 날 행사를 가졌다. 동원시스템즈, SGC솔루션, 수남기업 등 하이트진로의 협력사 100곳이 자리를 함께했다.

하이트진로는 '함께한100년, 그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가 협력사 초청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리고 함께할 100년' 슬로건을 공개, 협력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함께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협력사별 기념현판을 제작,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이래 협력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및 화합

을 위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선포,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꾸준히 소통해 오고 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도 동반자가 돼 준 협력사가 곁에 있어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하이트진로는 100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협력사의 지속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올해 '글로벌 비전 2030' 선포,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 100주년에디션' 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 등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신현선 기자 tree6834@

예탁결제원

외화증권 투자지원 30주년

이순호 사장 "외화증권 접근성 제고"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사진)을 비롯해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정은영 HSBC코리아 행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예탁원을 통한 외화증권 의무예탁제도는 1994년 7월 정부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직접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소유한 외화증권과 투자자의 외화증권은 예탁원이 지정한 외국 보관기관 예탁원 명의 계좌에 보관되고 있다. 보관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1250억 달러이며 최근 1년간 결제금액은 약 462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순호 사장은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는 '94년도 당시 미화 약 18만 달러에서 현재 41개 외화증권 시장, 1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인사

◆세아베스틸 ◇신규 선임 △대표이사 서한석 △경영총괄 홍상범 △군산공장장 홍성원

부음

▲김복성 씨 별세, 김진영(SNT다이내믹스 전무이사)씨 부친상 = 8일,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10일. ☎055-372-4447